

#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선정작 발표

한국경쟁 극영화 8편 · 다큐멘터리 2편 총 10편 선정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한국경쟁 부문에 대한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10편을 선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부문은 감독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 연출작을 소개하는 섹션으로, 제22회 이재은, 임지선 감독의 <상적표의 김민영>, 제23회 정지혜 감독의 <정순>, 제24회 신동민 감독의 <당신으로부터> 등 8편 한국경쟁 부문 대상을 수상한 작품들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국내 영화계를 이끌 신인 감독들의 등용문으로 주목 받았다.

김이소 감독의 <나선의 연대기>는 화상통화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는 주인공 웅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건물 철거로 인해 연습실을 잃을 위기의 극단원들이 철거를 지연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독특한 시선으로 담았다. 박정미 감독의 <담요를 입은 사람>은 어린 시절 꿈이었던 여군 장교를 3년 만에 전역하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찾아 무전여행을 떠나며 마주하는 것들에 대해 담은 셀프 다큐멘터리다.

김태양 감독의 <미망>은 서울을 배경으로 여러 해에 걸친 남녀의 우연한 만남과 이별을 이

야기하는 영화이다. 양주연 감독의 <양양>은 짧은 시절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모의 발자취와 고모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여정 속에서, 가족 안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해 질문하는 다큐멘터리다.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홀어린 밤>으로 한국경쟁 부문 대상을 공동 수상한 바 있는 김솔 감독이 두 번째 장편으로 전주를 찾는다. 김솔 감독의 <어둠 노트>는 피아노 강사로 활동하는 주인공 수인이 지도교수의 권유로 연주회에 참가하게 되고, 연주회를 준비하며 떠오르는 과거와 오토차는 심경의 변화에 주목하는 작품이다.

정해일 감독의 <언니 유정>은 평소 서툰한 사이의 자매인 유정과 기정의 이야기로, 동생 기정이 영아 유기 치사 사건에 연루되며 벌어지는 두 인물의 사투와 가족애를 다뤘다.

이상하 감독의 <엄마의 왕국>은 자기계발서 작가인 주인공 지옥이 모친의 갑작스러운 치매 소식을 듣게 되며,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두 모자의 고군분투를 담았다. 장민민 감독의 <은빛살구>는 팽파리어 웹툰 작가 정서가 이혼한 아버지에게서 엄마의 빛을 받으려 나서며 가족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솔해, 이도진 감독의 <통잠>은 임신을 원함에도 수년간 난임이 지속된 부부인 지연과 도진의 갈등을 쫓아가 사생활 갖게 담아내 눈길을 끈다.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부문에서 <십계월의 미래>를 선보인 바 있는 남궁선 감독은 올해 신작으로 관객과 만난다. 남궁선 감독의 <힘을 낼 시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15번째 인권영화 프로젝트로, 흥행에 실패한 아이돌 삼인방의 뒤늦은 수화여행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돌 산업의 문제점과 현재 청년세대의 모습을 명확하게 담아내고 있다.

한국경쟁 심사에는 전주국제영화제의 문석, 문성경, 전진수 프로그래머 3인이 참여했다.

심사위원들은 "한국경쟁 부문에 선정된 10편의 영화는 그 어느 해보다 알차고 탄실하다"며 "특히 여성에 관한 서사는 올해도 강세를 보였다. 감독의 성별이나 장르와 무관하게 한국경쟁작 대다수는 영화 중심에 여성이 존재했고, 그들의 내면을 관통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한국경쟁 부문에서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산업 프로그램인 전주프로젝트가 놀라운 성과를 통해 존재 의의를 보여줬다"며 "워크인프로그레스 프로그램에 산업계가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할 이유가 생긴 셈"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 독문학도 손으로 만든 '사운드오브 뮤직'

전북대 독어교육과 · 독일학과 학생들이 독일어 뮤지컬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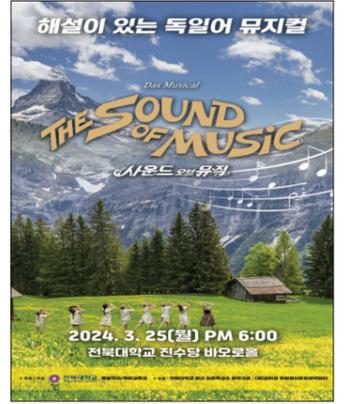
'사운드 오브 뮤직'이 25일 오후 6시 전북대학교 진수당 바오로 홀에서 이 학교 독어교육과와 독일학과 학생들이 펼치는 독일어 뮤지컬 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무료로 열린다.

이 뮤지컬은 전북대 독어교육과와 독일학과 학생들에게 독일 문화와 정신, 그리고 언어를 체득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학생들이 기획에서부터 무대, 연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준비했다.

학생들은 독일학과에 재학 중인 소프라노 김정은 씨의 지도를 받아 지난 여름방학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매진해 왔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억 원을 기부한 영산김정옥 교수의 장학금의 지원도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우리말 해설이 있는 독일어 뮤지컬로 진행된다. 영화 '사운드오브뮤직'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도레 미송과 에텔바이스 등 12곡의 주옥같은 노래를 만날 수 있다. 친숙한 음악들을 독일어로 들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그간 배운 어학 실력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 이어 공연에 참여한 김예림·김미진 학생(독어교육과)은 "작년에 함께 준비했던 독일어 뮤지컬 공연이 다시 열리게



돼 매우 기쁘다"며 "다시 한번 멋진 작품을 위해 열정적으로 지도해 준 김정은 교수님, 그리고 학우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번 공연을 준비한 이슬기 학생(독일학과)은 "지난해 여름방학부터 많은 학생들이 모여 학업과 병행하면서 틈틈이 연습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많은 분들이 우리 공연과 함께해 우리 학생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더욱 빛나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광역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광역·지역센터 간담회 가져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정희 원장)는 지난 22일 상반기 경력단절예방광역·지역센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군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도내 5개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센터 간 업무 수행 노하우, 우수사례 공유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올해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 기업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경력단절예방의 사회

적 관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핵심이 되는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정해 심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력단절예방사업 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전정희 원장은 "여성들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내실있는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일센터 협약 기관들과의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063-254-37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4월 6일 '경성유행가-판을 나온 소리' 개최

국립민속국악원 예연당에서는 오는 4월 6일 오후 3시, 1920~30년대 유성기음반에 담겨 있는 당시 유행가를 경성 신식극장 무대에서 재현하는 '경성유행가-판을 나온 소리'가 열린다.

이 공연은 국립국악원(원장 김영운)과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이 우수 작품을 상호 교류해 다른 지역의 관객들을 찾아가는 공연으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작년 9월에 초연한 작품이다.

작품은 소리를 기록하기 시작한 1920~30년

대 활발한 활동을 펼친 최순경, 권명하, 박명화, 박부용, 이은관, 이경자, 오태석, 임방울 명창들이 유성기 음반에 남긴, 민요, 판소리, 신민요 등을 국립국악원 단원들이 당시의 창법에 가깝게 노래한다.

경성유행가는 유성기음반을 복원하기 위한 무대라기보다는 세련되고 정형화된 현재의 음악에서 벗어나 100년 전 창법으로 당시의 문화적 취향을 노래함으로써 예술적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한 무대이다.

관람 예약은 전화(063-620-2320) 또는 카카오



톡 채널(상담원과 대화),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www.namwon.gugak.go.kr)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입주보고회

전주문화재단, 4월 14일까지 '사이, 느슨한 매듭' 개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오는 4월 14일까지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7기 입주보고회 '사이, 느슨한 매듭'을 개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7기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수호, 김순임, 이정우, 장연호, 장우석, 정지현, 지말원(GRI) 7인으로 회화, 설치, 뉴미디어,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이뤄졌다.

창작스튜디오 7기 입주보고회 '사이, 느슨한 매듭'은 새로 입주한 7인의 작가가 그동안 자신만의 예술적 정체성과 실험을 토대로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통해 창작 과정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전시다.

특히 재단은 2018년부터 국내·외 시각예술가를 대상으로 창작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예술교류 활동을 증진하고자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57명의 국내외 시각예술가를 지원했다.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7기는 입주보고회를 시작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기획세미나, 리서치투어, 비평가매칭, 오픈스튜디오), 국내 네트워크 교류(국내 레지던시 기관 교류, 기획자 및 예술인 교류), 아카이빙 구축(출판물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등 12개월 간 창작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창작스튜디오 7기의 첫 시작인 입주보고회에 많은 관객이 찾아와 관람하고, 앞으로 1년간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에서 입주작가 7인이 선보일 다양한 활동에 기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팔복예술공장 A동 2층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창작기획팀(063-212-8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